
평행선을 달리는 쿠바 정부와 국민

제시카 도밍게스 델가도

쿠바 디지털 잡지 『엘토케(elTOQUE)』의 '팩트체크(DeFacto)'부 편집자

원제와 출처: Jessica Dominguez Delgado, “El pueblo, el gobierno y las realidades paralelas en Cuba”, *Nueva Sociedad*, No. 295, septiembre–octubre de 2021, pp. 113–122.

핵심어: 7월 11일, 위기, 시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2021년 7월 11일의 쿠바 시위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이날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뿐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요구하고, 왜 나왔고, 시위 전개 과정과 후속 처리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시위가 자발적인 사회 저항, 즉 국가적 위기 상황이 폭발한 것이라고 하고, 쿠바 정부쪽에서는 사주받은 사람, 반혁명분자, 적의 미디어 선동에 넘어가 “사태 파악을 못한” 혁명세력¹⁾ 참여한 소요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1) ‘혁명세력’이란 1959년 쿠바혁명으로 집권한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역주).

〈그림 1〉 2021년 7월 11일 아바나 카피톨리오(Capitolio) 앞에서 시위하는 쿠바 사람들



출처: <https://neai-unesp.org/cuba-y-las-protestas-del-11-de-julio/>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국민이 길거리로 나와 변화를 요구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하며, 정부쪽에서는 혁명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장거(壯舉)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은 둘 다이다. 어느 한 면만을 보고자 한다면 진실의 반을 놓치게 된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7월 11일에 일어난 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오 무렵, 아바나에서 35km 떨어진 산 안토니오 델 로스 바њ로스(San Antonio de los Baños)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모여 사회정치적 불만을 표출했다.
-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에서 시위가 있었다.
-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 인사들을 대동하고

산 안토니오 텔 로스 바뇨스로 왔다.

- 그 날 오후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사태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전투 명령을 하달한다. 혁명세력은 거리로!”
-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 대치, 반정부 구호, 친정부 구호가 뒤섞였다. 환전소를 강탈하고, 경찰에 대항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 휴대전화의 데이터서비스가 중단되고, 페이스북과 와츠앱(WhatsApp) 같은 플랫폼 접속도 차단되었다.
- 경찰이 시위대, 특히 시위를 촬영하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몇 건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 결국 시위는 진압되었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7월 11일 이후에 전개된 행위자, 이해관계, 사건의 다양성을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쿠바의 정치는 수년 동안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다. 인정하든 안 하든, 7월 11일 시위는 분수령이었고, 다른 면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쿠바 사회가 20년 전처럼 신뢰할 만하고 유토피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현실이었다.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증거였다.

양분된 국민

시위를 하겠다는 신고도 허가도 없었다. 쿠바 정부 발표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조직도 없었고, 지도부도 없었다.

정부의 대응력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시위가 가능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시위권은 2019년에 개정된 헌법 5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없다. 시위권 행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7월 11일 시위와 같은 운동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그렇지만 정당하지 않다거나 불법이라는 생각도 없었다. 쿠바 국민이 거리에서 시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다. 지식인과 예술가 엘리트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하려고 길게 줄을 서는 사람들, 생활에 지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쿠바혁명이 일어난 지 60년도 넘었건만 인종 불평등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성소수자(LGBTI+) 집단과 취약 계층,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권력과 직접 소통할 길이 없는 사람들, 레게톤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이었다.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대중 계급이 시위를 벌인 것이다. “미천한 사람들의 혁명, 미천한 사람들을 위한 혁명”에서 여전히 망각되고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위했다는 것이 바로 메시지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다양한 구호를 외쳤다. “단결한 민중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구호와 함께 “디아스카넬 개새끼”, “조국과 삶”,²⁾ “식품”, “의약품”, “민주주의”라는 구호도 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구호는 “자유”였는데, 아마도 자존감(의미는 각자 다르겠지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간간히 “우리는 무서울 게 없다”라는 구호도 들렸다. 시위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대담한 행동이었고, 사람들은 이런 점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에는 아무도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

2) 1959년 쿠바혁명 당시의 구호 “조국 아니면 죽음을!”(Patria o muerte)를 패러디한 말(역주).

있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옆사람과 나누는 얘기도 들렸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글쎄요. 참 힘드네요.” 그것이 공유한 감정이었다. 최근에 쿠바 사람들이 만나면 자주 나누는 얘기였다.

시위 장소는 도시 중심부와 가난한 동네였다. 예를 들어, 아바나에서는 디에스 데 옥투브레(Diez de Octubre), 센트로 아바나(Centro Habana), 아바나 비에하(Habana Vieja) 무니시피오에서³⁾ 시위가 있었다. 인구가 많고, 생활수준이 열악한 무니시피오들이다. 반면에, 지도층과 기업가와 외교관이 많이 거주하는 플라야(Playa) 무니시피오 같은 곳에서는 시위가 없었다. 어떤 사진을 보면 평화 시위라는 표시로 양팔을 높이 쳐든 사람들이 보인다.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이 적지 않은 시위자들의 의도였다.

경찰과 대중 단체 사람들, 공산당 지도부와 공산당 청년부 지도부, 국영기업 노동자들, 혁명세력도 나와서 시위를 막고 거리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다. 정부를 지지한다고 맞불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깃발과 피켓을 들고 밴드까지 동원했다. 경미한 물리적 충돌도 있었으나 그런 폭력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다음날 디아스카넬은 “혁명세력에게” 거리 질서를 회복하라고 요청한 것은 국민과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시위자의 폭력 행사에 국민이 방어했다”고 말했는데, 이로써 혁명세력만이 국민이며, 쿠바 전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 그렇지만 “범죄자들”, “사주받은 사람들”,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도 국민이다. 또 디아스카넬은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국민을 나누었다. 정부 역시 쿠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쿠바 안에

3) 무니시피오(municipio)는 주 바로 아래의 행정 단위이다. 2019년 현재, 아바나의 15개 무니시피오를 포함하여 쿠바 전역에 168개 무니시피오가 있다(역주).

있는 사람들을 나누었다. 전자의 송금은 쿠바 외환 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또 엄연히 쿠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정치 참여도 못하게 막았다.

현재 쿠바 국민은 전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것이 쿠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주의 주 동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조국과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는 물질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로 재단되는 나라라면 이주 동기는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며칠 동안 시위는 국경을 건너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토론토,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데 칠레, 마이애미, 워싱턴 등지로 퍼져 나갔다. 정당한 요구를 한 국민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되어, 재판을 받고—『쿠바데바테』(Cubadebate)에 따르면⁴⁾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벌금을 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당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국민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

쿠바에는 하나의 현실만 있지 않다. 정치적 견해도 하나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공식적인 견해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단결’이라는 구호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단결이라는 말은 이제 지배 권력에 반대하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었다. 반정부운동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 반대하는 표현 자체가 이단의 징표이다. 따라서 단결 추구는 차별과 배제와 소외로 나아간다. 쿠바 정치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4) Oscar Figueredo Reinaldo: “As marchan las investigaciones penales tras los sucesos del 11 de julio en Cuba” en *Cubadebate*, 4/8/2021.

자이다.”⁵⁾

쿠바 정부의 태도는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이다. 과거에 살고 있으며,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권의 노력은 이미 성취한 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었다. 보편 교육,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사회 보험, 고용 보장, 기본급과 기초식품이라는 사회 정의 계획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좋아지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다.

‘당과 혁명의 사회경제 정책 지도 요강’(Lineamientos de política económica y social del Partido y la Revolución, 흔히 ‘지도 요강’이라고 부른다), ‘2030 사회경제 발전 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30), ‘완전 정상화 사업’(Tarea Ordenamiento) 등등 잇달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잇달아 전당 대회를 열고, 잇달아 실패했다. 쿠바 경제는 국민의 물질적 삶을 긍정적으로 추동하지도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만족할만큼 성장하지도 못했다. 반면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호텔 건축 사업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농업은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쿠바 정치는 특히 국제 무대에서 거칠게 소리나 질러댔다. 유엔에서 외교관들은 고함을 질러 토론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고,⁶⁾ 정치가들은 공허한 구호나 되풀이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언론에 발뺌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⁷⁾ 여기에 덧붙여 최고 지도층 가족은 투기와 낭비로 스캔들을 일으켰다.⁸⁾

5) 누가복음 11장 23절(역주).

6) “Cuba usa gritos y ruido para acallar denuncia de EEUU sobre presos políticos” en *Agencia EFE*, 16/10/2018.

7) Glenda Boza Ibarra: “Canciller cubano: manipulación, omisión y medias verdades” en *elTOQUE*, 15/7/2021.

8) “Nieto de Fidel Castro publicó video tras polémica por conducir un Mercedes Benz”, en *Semana*, 5/3/2021.

이 모두가 정부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게다가 정치가의 연설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대다수 국민과 관계가 없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국영TV에 출연하여 적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지도층을 질책하는 대통령도 아니다. 쿠바 현실과 실정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사태에 대한 공식 발표는 오만에서 타협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양보는 아니었다. 모호함이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자유 반입을 허용하고, 20만 명 이상에게 배급표(식품과 위생용품의 기본 할당량 분배)를 나눠줬다.⁹⁾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시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국민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실책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여론의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 결정도 불확실하고, 법적 틀 마련도 미적거렸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여기에 덧붙여 관료주의, 침묵, 투명성 결여, 회계 감사와 국민 통제 결여도 있었다. 현재는 상황이 변했다. 이제 역사적인 쿠바 혁명 지도자들은 없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현 정치가들의 정당성이 의문시된다. 쿠바 정치가들은 창조적이고 역량이 있어야 한다. 특히, 60년 전에 미국이 주도한 봉쇄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해야 한다. 봉쇄는 쿠바 정부뿐만 아니라 쿠바 국민에게도 부당하고 잔인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내 상황 변화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국가 발전의 지체를 정당화하지도 못한다. 권리로서 시위의 정당성과 시위의 원인을 모르는 것,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체포된 사람들의 처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것, 시위 참여자를 범죄시하는 것이 또 다른 쿠바의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 실험실에서만, 정치라는 비눗방울 속에서만 작동하는 현실이다.

9) AAVV: "Detalles sobre las medidas económicas anunciadas por el Gobierno cubano" en *Cubadebate*, 16/7/2021.

쿠바 정치는 고도로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순과 문제점을 반영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양탄자 밑에 쓰레기를 숨기는 것과 같은 허구적 단결은 사회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방해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는 변화와 변혁의 가능성을 말살한다. 그런 정치는 7월 11일 시위와 같은 사태를 마주하면 무기력해진다.

무소불위의 사법 당국

라틴아메리카, 미국, 유럽에서 거리 시위에 진압하는 경찰이 쿠바 경찰보다 훨씬 난폭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기관의 권력남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최루탄과 같은 시위진압 수단을 사용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경상자가 생기고 발포가 있었다. 거리에는 경찰, 군인, 특수대, 민간인 복장으로 충기를 소지한 기관원들이 짝 깔렸다. 게다가 의무 병역 기간이라서¹⁰⁾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청년들은 민간인 복장에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 화가 난 이들은 분풀이를 하고자 시위대를 구타할 의도가 있었다. 시위대를 진압하고, 힘을 과시하고자 했다(방어할 때만은 아니었다). 이것이 아마도 7월 11일 사태 중 가장 심각한 일이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기에 누군가 한계를 설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경찰의 주 임무는 국민 보호라는 사실을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경찰의 장비 구입, 방어 비용, 시위와 같은 사태에 대한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 등을 논의했다.

7월 11일 시위에서 공식적인 사망자는 한 명뿐이었다. 디우비스 라우렌티시오

10) 쿠바에서는 18세부터 28세의 남자는 2년 동안 병역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모두 현역(Servicio Militar Activo)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보충역(Servicio Militar Reserva)으로 유관 기관에서 근무한다. 이 글의 저자는 보충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역주).

테하다라는 36세 남성이었다. 내무부 발표는 마치 죽어도 마땅하다는 듯이 전과 경력을 언급했다. 그러나 폭력은 거리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서로 끌려간 후에도 계속됐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유린, 공권력 남용, 음식 제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 무시 등은 나중에 증언으로 밝혀졌다.¹¹⁾ 사실 대량 체포 보다는 주동자 체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정보기관의 전략이었다. 7월 11일 시위에서 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없다.

미디어, 주인공

7월 11일 시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요 정보원은 시민들의 제보이다. 시위 참여자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비디오와 사진이 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원천이다. 쿠바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시위 확산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2018년 12월(이때 모바일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쿠바 사람들은 연결 경험이 없었다) 이전이었다면 아마도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7월 11일 같은 시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특히 트위터에서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붙인 해시태그 #sosmatanzas에서¹²⁾ 파생된 #soscuba를 붙임으로써 인플루언서들과 국제적인 인사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야기했다.¹³⁾ 이런 행동 역시 쿠바 정부 측에서는 미디어전쟁의 일부로 단죄했다. 연결 수단과 매체로서 인터넷 접근의 중요성은 7월 11일 당일과 이후 며칠 동안 의사소통을 제한하려는 억압적 조치의

11) Eloy Viera Cañive: "El testimonio de Gabriela Zequeira describe un acto de tortura", en *Eltoque*, 30/7/2021.

12) 쿠바의 도시 '마탄사스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의 해시태그(역주).

13) "sos Matanzas ¿cómo puedo ayudar?", en *VISITAR*, 9/7/2021.

하나로 모바일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설명된다.

쿠바 미디어 환경, 특히 소셜미디어 공간은 양극화되어 있다. 한편에는 증오와 대화 거부가 판을 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정부 세력이 사안을 열버리거나 과대포장하거나 무시한다. 시위와 관련된 허위 정보는 스페인의 ABC신문과 같은 권위 있는 매체도 관심을 기울여, 라울 카스트로가 도망쳤다는 소셜미디어 정보는 가짜라고 밝혔다.¹⁴⁾ 엉뚱한 날짜의 살인 사건 비디오 클립이나 7월 11일 사태와 무관한 글귀나 이미지도 웹에 유포되고 있다.

한편, 쿠바의 공식 매체는 정부 견해만 전달하고 있다. 국영TV(항상 그랬지만)나 다른 어떤 매체도 7월 11일 시위에 대해 언론사가 취재한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얼마 후에 “혁명세력 미팅”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공식 발표만 되풀이했을 뿐, 그 어떤 문제 제기나 관련 보도도 없었다. 정부가 시위를 언급한 후에야 공식 언론은 시위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7월 11일 당일부터 쿠바 언론인 연합 회장은 “4세대 전쟁의 심각성과 비열하고 허구적인, 미디어의 포위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쿠바인의 긍지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언론인연합 회원들은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항존하는, 외부의 이해관계

쿠바 생활은 좋은 싫든 미국의 정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부 운영부터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항상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양국 행위자들의 교섭 관계와 다방면의 긴장 관계에서 항존한다. 경제, 무역, 금융 봉쇄는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반쿠바 정책

14) DeFacto: “Desinformaciones en el contexto de las protestas”, en *elTOQUE*, 21/7/2021.

지원 금융, 2017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목표 변경이 아닌 전략 변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243가지 부가 조치와 아바나 주재 미대사관 폐쇄는 현 쿠바의 경제사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드러낸 몇 가지 예다.

따라서 7월 11일 시위에 대해서 쿠바 정부에 반대하는 외국의 이해관계 그룹은 이빨을 드러내고, 쿠바의 시간이 왔거나 반정부 상황을 조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폭력과 파괴 행위를 자극하고 응원했다. 고전적인 수법인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여타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무화시키지는 않는다.

외부에서는 종종 간섭과 내전을 “만악의 해결책”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외국의 간섭과 내전은 대다수 쿠바인에게 바람직한 선택지는 아니다.

7월 12일 조 바이든 미 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에서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쿠바 국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7월 22일에는 쿠바 혁명군 장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고, 쿠바 내무부 특수 부대를 해외자산통제국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¹⁵⁾ 7월 31일에는 재미쿠바단체의 대표자들과 만났다.

여타의 국제 행위자들(정부, 단체, 정당)은 쿠바에 대한 호기심, 관심, 연대를 표명했다. 쿠바가 국제 지정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쿠바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위를 미국이 기획한 ‘연성 쿠데타’의 결과라든가 미디어의 조작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위자 참가자들의 복잡성, 책임감, 다양한 동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과 정치적 거리를 두려는 것이고, 시위권을 무시하는 것이고(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서 명확해졌다), 쿠바의 현 상황과 우선 사항

15) Aamer Madhani y Matthew Lee: “Estados Unidos anuncia nuevas sanciones a Cuba”, en *Los Angeles Times*, 22/7/2021.

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진지하고도 비판적인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참여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지난 7월 11일, 쿠바에서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했다. 쿠바에 대한 단순하고 단편적인 관점을 넘어서 쿠바 사회가 정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일이었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쿠바 정치도, 국민의 응답도 그렇다. 이런 양극화는 역사적으로 끓아온 갈등의 산물이다.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질적 삶의 심각성 및 점증하는 생활 불안정성,¹⁶⁾ 예를 들어 경제 위기, 달러화 경제, 실질 소득 감소, 의약품과 식품 부족, 정전과 단수 등 불안정한 전기와 상수도 공급, 코로나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모, 피로, 신뢰 상실, 특히 희망 상실 또한 원인이다.

박병규 옮김

16) J. Dominguez Delgado: “¿Por qué estallaron las protestas en Cuba?”, en *elTOQUE*, 13/7/2021.